

2026 07  
제258호

# 대덕 라이프



대덕라이프 QR



대덕구카카오 채널 QR

튼튼 대덕, 주민이 중심입니다



2026년 7월 1일  
취임식

- 03 민선9기 김찬술 대덕구청장 인터뷰
- 05 십자말풀이, 대덕의 역사문화를 찾아서
- 06 대덕구 맛집을 찾아서

- 07 대덕구 부서를 소개합니다
- 08 열린의정
- 10 [단체 인터뷰] 파크골프협회

- 11 [개인 인터뷰] 손옥희 손쌤 손가락  
난타 공연단 대표
- 12 대덕톡톡

## 김찬술 대덕구청장 취임사



###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민선 9기 대덕구청장 김찬술입니다.

먼저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이지만, 저에게는 무거운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더 나은 대덕을 향한 변화와 혁신에 대한 바람을 저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저는 그 뜻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 모든 구정 방향이 구민의 삶을 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 민선 9기 대덕구정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랑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대덕구는 자연과 산업, 전통과 미래가 함께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주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모여 지금의 대덕을 만들었고, 그 힘이 대덕의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대덕의 미래도 결국 구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기간 동안 대덕의 현실을 직접 보고,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일자리를 걱정하는 청년, 골목상권을 지키는 상인, 평생 대덕을 지켜온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서로 처한 상황은 달랐지만 한 가지 바람은 같았습니다. "대덕이 더 살기 좋아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 소박하지만 간절한 소망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덕은 지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의 어려움, 청년 유출과 도시 성장의 정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덕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역시 구민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김찬술,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민선 9기 대덕구정의 중심은 언제나 구민입니다. 구민의 목소리가 구정의 중심입니다. 행정은 구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정책은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혁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책상 위 보고서보다 구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행정은 계획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말보다 실천으로, 보여주기보다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대덕구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대덕의 미래 5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산업은 더 경쟁력 있게, 도시는 더 살기 좋게, 교통은 더 편리하게, 복지 는 더 촘촘하게, 교육은 더 희망차게 만들어야 합니다. 당장 필요한 변화는 속도감 있게 추진 하고, 대덕의 미래를 위한 기반도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는 대덕구청 공직자 여러분이 있습니다.

###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대덕의 변화와 혁신은 구청장 한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주민과 행정, 지역사회가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저는 늘 현장에서 듣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 여러분과 함께 대덕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든든대덕. 대덕의 미래 50년을 향한 여정을 구민 여러분 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저 김찬술,  
여러분의 든든한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행인      대덕구청장  
편집인      미디어홍보과장  
발행처      미디어홍보과(TEL:608-6606)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홈페이지      www.daedeok.go.kr  
발행일      2026년 7월 6일(제258호)



# “ 대덕의 미래 50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

민선9기 김찬술 대덕구청장 인터뷰



도시의 변화는 결국 사람들의 일상에서 시작된다.

아침 출근길의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에 작은 안심이 더해지고, 우리 동네를 바라보는 눈빛에 자부심이 스며들 때 사람들은 비로소 변화를 느낀다. 도시의 미래는 그렇게 평범한 하루 속에서 조금씩 완성된다.

7월 1일 민선9기 대덕구청장이 출범했다.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대덕의 미래 50년을 준비하겠다고 말한다. 주민의 삶을 바꾸는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김찬술 구청장에게 대덕의 내일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 <편집자주>

**Q 민선9기 대덕구청장으로서 포부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구민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이 가장 큽니다. 동시에 대덕구청을 맡게 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행정을 이끄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현장을 더 자주 찾고 더 많이 들겠습니다.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지역의 현안을 세심하게 살피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믿음에 성과와 변화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지금의 대덕을 어떤 도시라고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대덕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도시입니다.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대전산업단지가 있고 대청호와 계족산이라는 소중한 자연자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랜 시간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저력이 있습니다. 저는 대덕이 가진 강점들을 하나로 연결해 더 큰 성장의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자산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덕의 잠재력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민선9기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Q 앞으로 4년, 가장 먼저 달라졌으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입니다. 행정의 성과는 보고서가 아니라 주민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이 조금 더 편리해지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복지 서비스가 더 촘촘해지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구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끼고 웃을 수 있는 순간들이 많아질 때 행정의 가치도 함께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지금 대덕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덕은 그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의 기반을 지켜왔습니다. 이제는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기보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대덕에는 충분한 잠재력과 경쟁력이 있습니다.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주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왼쪽 사진: 김찬술 대덕구청장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 오른쪽 사진: 김찬술 대덕구청장이 직원들과 회의 중인 모습.



**Q**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좋은 행정이란 무엇입니까?

주민의 목소리에 답하는 행정입니다. 행정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약속한 것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주민과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여 주기 위한 행정보다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언제나 현장 속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Q** '든든한 대덕'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청년들은 미래를 꿈꾸며 어르신들은 편안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도시입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기업이 활력을 찾고 주민 모두가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세대와 계층을 넘어 누구나 안정감을 느끼고 희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든든한 대덕의 모습입니다.

**Q** 4년 뒤, 주민들의 일상에 어떤 변화가 남아 있기를 바라십니까?

주민들께서 '대덕이 정말 달라졌다', '살기 좋아졌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사업보다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출근길과 퇴근길,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이웃과 마주하는 순간마다 조금 더 행복하고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4년이 대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늘 주민 곁에서 듣고 소통하며 약속을 실천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술 구청장에게**

**직접 연락하세요!**

"구청장님, 우리 동네 가로등이 안 켜져요"  
"버스가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히 들겠습니다.

**민원상담 전용 휴대전화**  
**010-8578-0800**

문자, 카카오톡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구청장님, 오늘 제 생일인데  
방 한번 사주세요!" 라고 연락하신다면?  
일정이 허락하는 날,  
장미꽃 한 송이 들고 정말 찾아갈지도  
모릅니다.  
강아지 사진, 고양이 사진, 꽃 사진,  
연예인 사진은 누구신지 몰라서 답장을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구청장.**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카카오톡 프로필은 실명과  
본인 사진으로 부탁드립니다.

대덕라이프 2026년 7월호(258호)  
십자말풀이 정답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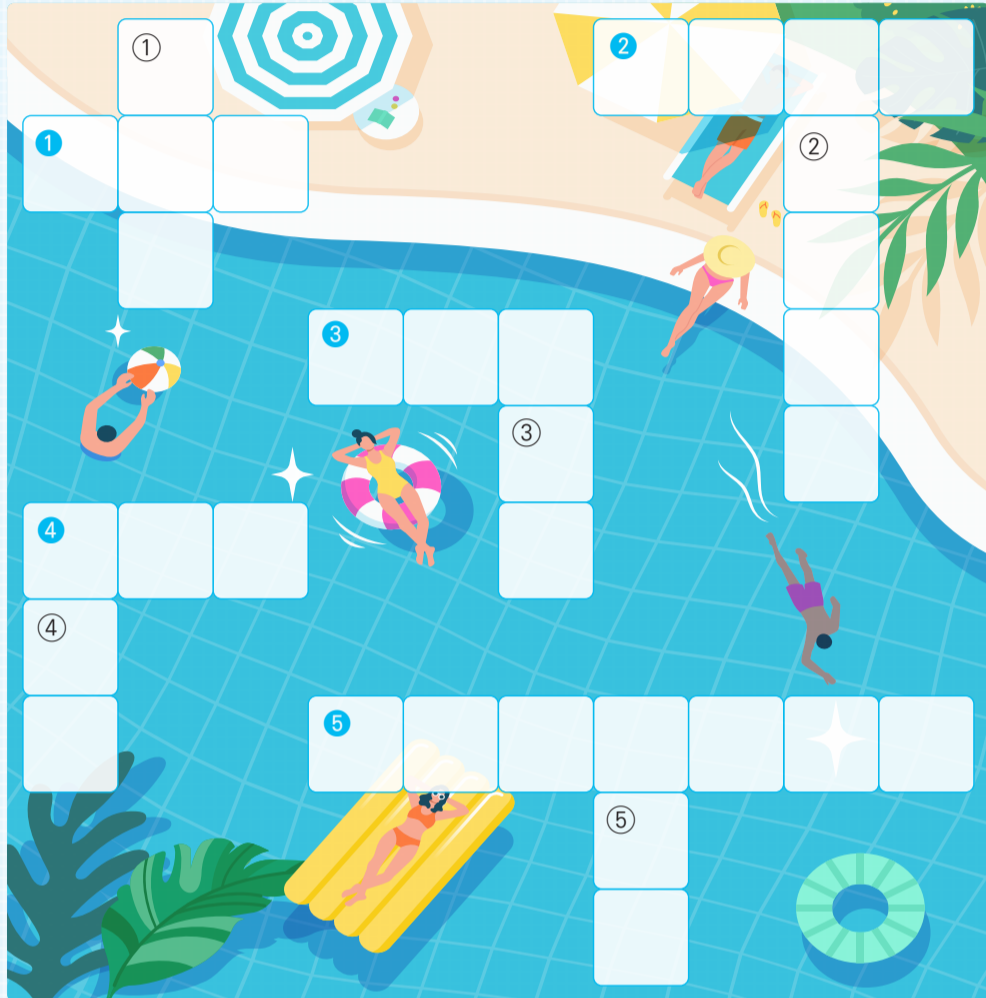
접수기간 2026년 7월 6일(월) 오전 9시 ~  
7월 24일(금) 오후 11시 30분까지

참여방법 십자말풀이 정답을 작성하여 제출(1인 1회)

당첨자 발표 개별 문자 안내

정답을 맞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기프티콘을 선물해 드립니다.

정답 제출 이후에는 답안 수정이 불가하오니, 제출 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라이프 십자말풀이 이벤트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취득하며,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당첨 및 선정 확인 등 이벤트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됩니다.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에 동의하실 경우에만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이벤트 당첨 및 선정 확인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벤트가 종료된 후 1년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할 권리 : 이벤트 당첨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5. 상품 받으실 분의 개인정보 오류나 부재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 대덕구 미디어홍보과(☎042-608-6606)

가로퀴즈

- 1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제정된 국경일. 매년 7월 17일에 해당한다.
- 2 명사, 강가나 바닷가에 있는 넓고 큰 모래벌판.  
힌트 : 아이들은 즐거운 듯이 ○○○○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 3 명사, 얼음덩이를 잘게 갈아서 삶은 팔이나 설탕, 연유(煉乳) 따위를 섞어 먹는 음식.
- 4 명사, 과실나무를 심은 밭. 흔히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얻기 위하여 배나무, 감나무, 밤나무, 대추나무 따위를 가꾼다.
- 5 대전에 위치한 우리나라 대표 천문우주 연구기관으로, 1974년 발족해 우주의 근원에 대한탐구하는 기관의 이름은? 힌트 : 일곱 글자.

세로퀴즈

- 1 명사, 역사 고려·조선 시대에, 정사(政事)를 논의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관리의 비행을 조사하여 그 책임을 규탄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사헌대를 고친 것으로, 충렬왕 24년(1298)과 공민왕 18년(1369)에 이 이름이 다시 사용되었다. 힌트 : ○○○는 조선 시대의 최고 권력 기구에 속한다.
- 2 사회 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보건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으며 1급·2급의 등급이 있다. 등급별 자격 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힌트 :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떠돌아다니던 그 아이들은 요즘 ○○○○○의 도움을 받고 있다.
- 3 명사, 바다나 강 따위의 물에서 나는 산물.
- 4 명사, 과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 주로 자연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을 이른다.
- 5 명사, 학용품과 사무용품 따위를 파는 곳.

대덕의 역사문화를 찾아서

대전 대덕구는 계족산, 대청호 등 청정 자연환경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무형 문화재를 보유한 한밭 정신문화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대덕의 역사에 새겨진 위대한 인물들의 삶과 업적을 살펴봄으로써 지역 대덕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해 보고자 한다. 역사인물은 가나다순으로 소개된다. <편집자주>

10 | 송기후(宋基厚)

송기후는 조선 후기의 학자로 호는 문도재(聞道齋), 본관은 은진, 송시열의 아들이다. 일찍이 송준길과 송시열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윤희와도 친하여 윤희의 중용을 보고 기뻐했으나 송시열의 책망을 듣고는 상종하지 않았다. 1656년(효종10)에 천거로 자의에 제수된 이후 지평, 장령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고 오직 학문과 교육에만 힘써 세상에서 '문도선생'이라 일컬었다.

송기후는 종일토록 정좌하여 자세가 흐트러지는 일이 없었으며, 기거나 행보에도 단중하였다. 계모 섬기기를 생모와 같이 하여 후모가 병이 들어 시탕함에도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고 효성을 다하였으며 우애가 돈독하여 그를 쫓아서 배우는 제자들이 많았다. 효종과 현종 때 기호지방의 대표적인 유일(遺逸)로 천거된 바 있다. 1674년 청주 남일면에서 별세하였다. 묘소는 청주 남일면 화당리에 있고, 묘표는 우암 송시열이 지었다.

<대덕문화원 참고>



## 건강한 재료와 수제의 정성을 담은 한 접시 송촌동 브런치 카페 '모락'

향긋한 커피 한 잔과 신선한 재료로 만든 브런치가 생각날 때 찾기 좋은 공간이 있다. 송촌전통시장 인근에 자리한 브런치 카페 '모락'(대표 최술)이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최술 대표는 졸업 후 카페 창업을 목표로 카페 매니저로 근무했다고 한다. 이후 브런치 카페로 자리를 옮기며 요리의 매력에 빠졌고, 주방에서 직접 조리 과정을 배우며 경험을 쌓았다. 그렇게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해 자신만의 색깔을 담은 공간인 모락을 열었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참나물 파스타와 모락 플레이트, 스테이크 샐러드 피자다. 참나물 파스타는 된장과 수제 소스를 베이스로 만들어 은은한 감칠맛과 향긋한 참나물 향이 조화를 이룬다. 모락 플레이트는 프렌치토스트와 샐러드, 당근 라페, 계란, 소시지, 수제 리코타치즈 등을 한 접시에 담아 든든한 한 끼를 완성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스테이크 샐러드 피자는 바삭한 페이스트리 도우 위에 신선한 샐러드와 스테이크, 수제 리코타치즈를 올려 가벼움과 포만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모락만의 차별화 포인트는 수제에 대한 고집이다. 최 대표는 리코타치즈는 물론 토마토 소스와 치킨 스톱까지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 특히 대부분의 파

스타에 들어가는 치킨스톡은 맛의 기본이 되는 만큼 더욱 세심하게 관리한다. 이 같은 정성은 손님들의 반응에서도 확인된다. 최 대표는 "평소 파스타를 먹고 속이 불편하다는 분들이 모락에서는 편안하게 식사했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라며 "번거롭더라도 직접 만든 소스와 재료를 고집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제 철학은 식재료 관리에서도 이어진다. 필요한 만큼만 재료를 준비해 당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족한 식재료는 직접 구매해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오전 8시부터 영업하며 샌드위치와 샐러드 예약 서비스를 운영해 출근길 직장인과 주민들에게 건강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모락이 추구하는 '편안한 한 끼'는 음식뿐 아니라 공간에서도 느낄 수 있다. 깔끔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매장은 혼자 브런치를 즐기기에 좋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도 제격이다. 최술 대표는 "앞으로도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꾸준히 선보이며 손님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고 싶다"고 말했다. 직접 만든 소스와 신선한 재료, 그리고 손님을 생각하는 진심이 담긴 한 접시. 모락은 오늘도 송촌동에 서 건강한 브런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 📍 대전 대덕구 동촌당로 83 114, 123호
- 💰 참나물된장파스타 16000원, 쉬림프오일파스타 13500원, 모락 플레이트 16900원, 스테이크 샐러드 피자 24000원, 스테이크 플레이트 20000원, 토마토소프&당근라페샌드위치 14900원, 베이컨크림리조트 13500원
- 🕒 09:00~20:00(19:00 라스트 오더)
- 📅 휴무일 매주 토요일



- 📍 대전 대덕구 중리로76번길 18
- 💰 고기-김치만두 1판(10개) 3000원, 찐빵 2개 1000원, 파배기 3개 1000원, 찹쌀도너츠 3개 1000원, 카레-야채감자-김치고로케 3개 3500원, 떡볶이 1인분 3000원, 튀김 2개 1000원, 고추-야채 튀김 3개 2000원
- 🕒 08:00~19:00
- 📅 휴무일 매달 2, 3, 4번째 화요일, 첫째주 일요일



## 24년 동안 지켜온 변함없는 손맛 중리동 '불티나만두찐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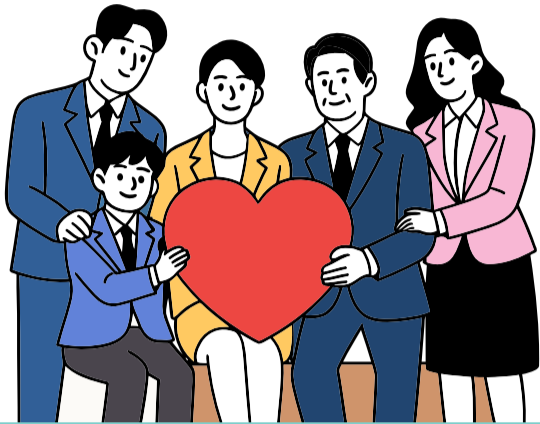
학교 앞 분식집이나 시장 골목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와 찐빵을 사 먹던 기억은 누구에게나 하나쯤 있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익숙한 맛이지만, 오랜 시간 변함없이 그 맛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대덕구 중리시장에는 20년 넘게 한자리를 지키며 주민들의 허기를 달래온 만두와 찐빵 전문점이 있다. '불티나만두찐빵'(대표 최경환·신순희)이다. 2002년 문을 연 이곳은 올해로 24년째 중리시장을 지키고 있다. 처음에는 만두와 찐빵만 판매했지만, 손님들의 취향에 맞춰 고로케와 파배기, 튀김류, 떡볶이, 어묵 등 메뉴를 넓혀왔다. 대표 메뉴는 단연 만두와 찐빵이다. 매장 앞 찜기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구수한 향은 시장을 찾은 사람들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붙잡는다. 부드러운 만두피 속에 신선한 재료를 채운 고기만두와 김치만두는 담백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특징이며, 촉촉하고 쫄깃한 찐빵 역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집의 경쟁력은 반죽에 있다. 최경환 대표는 "같은 재료라도 물의 온도와 숙성 시간에 따라 맛과 식감이 달라집니다"라고 말한다. 찐빵과 파배기, 고로케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반죽과 숙성 과정을 거

치며, 만두피와 만두소 역시 정성을 들여 만들어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다. 새벽 4시면 하루를 시작하는 부부는 오정동 농수산 물시장과 인근 시장에서 식재료를 직접 구입하고, 반죽부터 판매까지 대부분의 과정을 손수 챙긴다. 좋은 재료와 꾸준함이 맛의 비결이라는 생각에서다. 가격도 이 집의 강점이다. 고기만두-김치만두-군만두는 10개 한 판에 3000원, 왕만두는 3개에 3000원이다. 찐빵은 2개에 1000원, 파배기와 찹쌀도너츠는 3개에 1000원으로 부담이 적다. 시장을 찾은 손님들이 만두 한 판과 간식을 함께 사 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4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부모 손을 잡고 찾아왔던 아이가 성인이 되어 다시 찾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두와 찐빵을 사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함과 뿌듯함을 느낀다고. 최경환·신순희 대표는 "늘 찾아주시는 손님들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도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변함없는 맛을 지켜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꾸준함과 정성으로 쌓아온 손맛은 오늘도 중리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일상 속에 따뜻하게 스며들고 있다.

# 대덕구 부서를 소개합니다

## 도시녹지국

### 주택경관과 | 신청사건립과



도시녹지국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미래 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이 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신청사 건립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살기 좋은 대덕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번 대덕라이프 7월호에서는 도시녹지국 주택경관과와 신청사건립과를 소개한다.

### 주택경관과



주택경관과는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과 쾌적한 주거문화 형성,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담당하는 부서다. 건축물 안전관리와 건축 인허가, 도시경관 개선,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주택경관과는 ▲건축안전정책팀 ▲건축허가팀 ▲도시경관팀 ▲공동주택팀 ▲주택관리팀 등 총 5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건축안전정책팀은 건축행정 전반을 총괄하며 건축물과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건축물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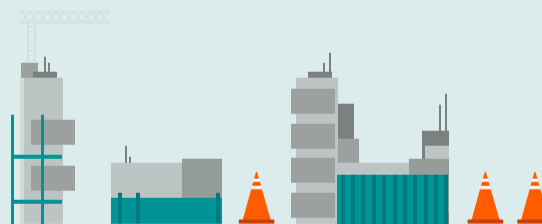
점검과 안전진단, 노후 건축물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며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건축허가팀은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용도변경 등 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다. 건축위원회 운영과 건축민원 처리, 가설 건축물 관리, 화재안전특별조사 등을 수행하며 체계적이고 신속한 건축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도시경관팀은 도시경관 정책 수립과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다. 범죄 예방환경 조성사업을 비롯해 도시경관 개선사업, 옥외광고물 관리,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통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있다. 공동주택팀은 공동주택 건설과 주택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공동주택 건축허가와 사용검사, 주택조합 관리, 품질점검과 안전점검 등을 추진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주택관리팀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 화합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감독과 지원사업 추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지원, 공동주택 분쟁 조정, 회계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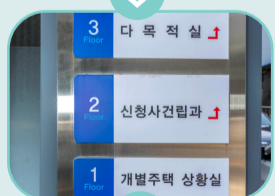
### START



### START



### 신청사건립과



신청사건립과는 대덕구의 미래 행정 중심 공간이 될 연축동 신청사 건립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다.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행정 절차부터 설계, 공사, 감리, 각종 기반시설 구축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구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신청사건립과는 ▲신청사건축팀 ▲신청

사기전팀 등 총 2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신청사건축팀은 신청사 건립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다. 신청사 건축 설계와 공사 추진, 건설사업 관리, 부지 매입, 각종 계약 및 예산 관리 등을 담당하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또한 신청사 건립기금 운영과 행정 절차 이행, 기술자문단 운영, 건립 백서 제작

등 사업 전반의 체계적인 관리와 기록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신청사기전팀은 신청사 내 기계·전기·소방·통신 분야의 설계와 공사를 담당한다. 각종 설비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설계와 시공을 관리·감독하고, 준공 이후에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설 구축과 품질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제10대 대덕구의회 의원 프로필



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 이삼남 의원

- 1969.05.30.
- 한남대학교 사회문화·행정복지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졸업(문학 석사)
- 제8대 대덕구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변인



가선거구 국민의힘

### 조대웅 의원

- 1987.05.20.
-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석사 과정 정책학과 휴학
- 제9대 대덕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국민의힘 제9대 대덕구의회 전반기 원내대표



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

### 정창희 의원

- 1969.01.23.
- 한양대학교 경기지도학과 졸업
-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소상공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전기본 사회부위원장



나선거구 국민의힘

### 김종삼 의원

- 1974.01.23.
-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국민의힘 대덕구당원협의회 사무국장, 김종삼약국 약사



나선거구 국민의힘

### 박은정 의원

- 1982.04.22.
- 혜천대학(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스투어디스 전공학과 졸업
- 국민의힘 대덕구당원협의회 중산층 서민경제위원장, 불빛공인중개사 대표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 서미경 의원

- 1965.11.11.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 제8대 전반기 대덕구의회 의장, 제7대 대덕구의회 의원



다선거구 국민의힘

### 전석광 의원

- 1969.07.04.
- 한남대학교 미래인재대학원 석사 과정 재학(사회복지학과 전공)
- 제9대 대덕구의회 후반기 의장, 제9대 대덕구의회 전반기 경제도시 위원장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 정미선 의원

- 1978.03.04.
- 대전대학교 이과대학 기초과학부 수석전공 졸업(이학사)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사)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마을회 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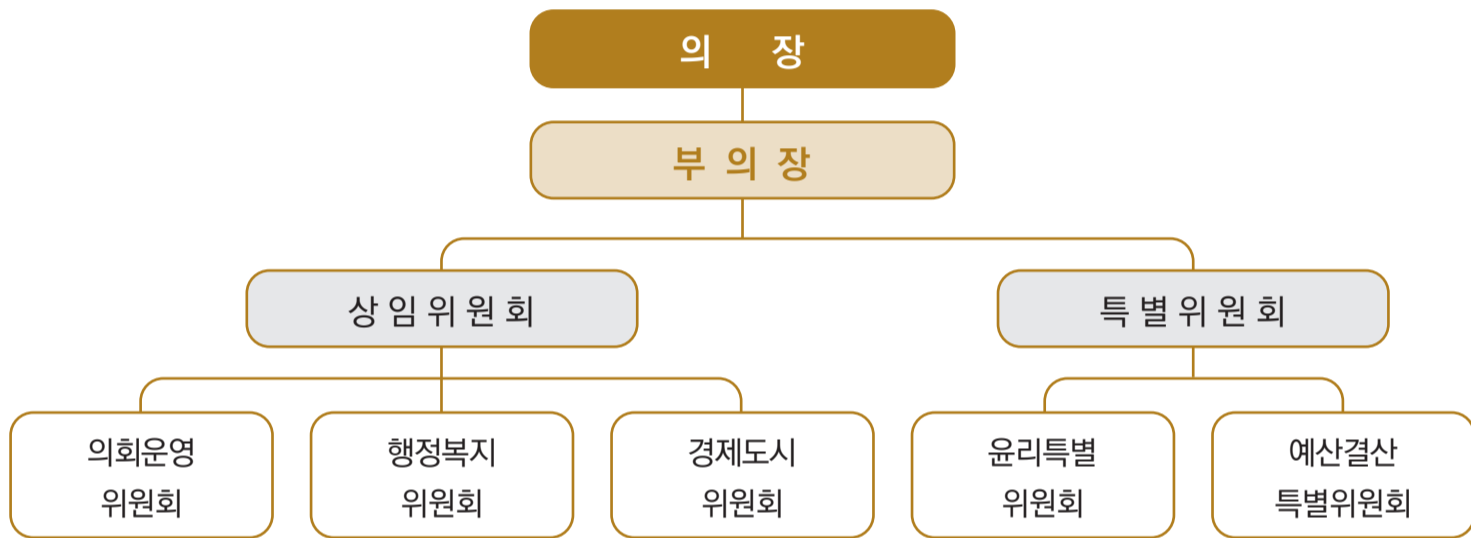
# 제10대 대덕구의의회 현황

## 의원

- 정 수 : 8명(지역구 7, 비례대표 1) / 3개 선거구
- 당적별 :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4명
- 성 별 : 남 4명, 여 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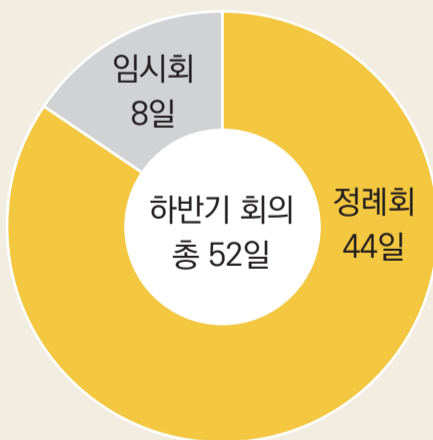


## 기구



## 2026년 하반기 회기 운영

● 운영기간 : 2026. 7. 1. ~ 2026. 12. 31.



구분	시 기	일수	주 요 안 건
제293회 (임시회)	7. 6.(월) ~ 7. 8.(수)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0대 의회 원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장 · 부의장 선거</li> <li>- 상임위원회 구성 등</li> </ul> </li> <li>개원식</li> </ul>
제294회 (임시회)	8. 3.(월) ~ 8. 7.(금)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반기 주요업무보고</li> <li>일반안건 처리</li> </ul>
제295회 (정례회)	9. 2.(수) ~ 9. 17.(목)	1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안건 처리</li> <li>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li> <li>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li> <li>구정질문</li> <li>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li> <li>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li> </ul>
제296회 (정례회)	11. 20.(금) ~ 12. 17.(목)	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안건 처리</li> <li>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병행)</li> <li>2026년도 정리추경 예산안(기금 포함)</li> <li>구정질문</li> <li>2027년도 예산안(기금 포함)</li> </ul>

※ 의정 여건에 따라 의사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사람을 잇고 건강을 더하다 대덕구파크골프협회

15개 클럽·680여 명 회원 활동... 대덕구 대표 생활체육 단체로 성장

건강과 친목 함께 나누는 사람 중심 공동체 문화 정착 '호응'

여운상 회장 "와동 36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돼 전국대회 유치 기반 마련되길"



이른 아침 을미기공원 파크골프장에는 경기 시작을 기다리는 회원들 사이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모르는 사람끼리도 자연스럽게 한조를 이루고, 경기를 마친 뒤에는 쉼터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해 시작한 운동이지만 어느새 사람을 만나고 정을 나누는 공간이 됐다.

대덕구에서도 파크골프를 찾는 주민들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을미기공원 파크골프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대덕구파크골프협회 역시 지역을 대표하는 생활체육 단체로 성장했다.

2024년부터 협회를 이끌고 있는 여운상 회장은 파크골프의 가장 큰 매력으로 '사람'을 꼽는다. 그는 "파크골프는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으면서도 건강과 친목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운동"이라며 "함께 걷고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라고 말했다.

대덕구파크골프협회는 단순한 운동 동호회를 넘어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협회에는 15개 클럽, 68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덕구청장배 파크골프대회는 올해로 13년째, 협회장기 대회는 12년째 이어지고 있다. 회원 수가 꾸준히 늘면서 조직 규모도 확대됐고, 이제는 대덕구를 대표하는 생활체육 단체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협회의 성장 배경에는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개방적인 문화가 있다. 을미기공원 파크골프장은 코스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구조로 조성돼 있어

초보자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처음 방문한 이용자도 자연스럽게 다른 회원들과 조를 이뤄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어 회원 간 교류가 활발하다. 경쟁보다 배려와 화합을 중시하는 분위기 역시 협회의 자랑거리다.

이러한 문화는 회원들의 일상 속에서도 이어진다. 협회 회원들은 주로 60~70대가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50대부터 80대 후반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운동을 통해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 이웃과 교류하며 활력을 얻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협회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데에는 임원진과 클럽 관계자들의 헌신이 있다. 이들은 모두 무보수로 활동하며 구장 관리와 행사 운영을 맡고 있으며, 별도로 회비를 모아 회의 비용과 식사비를 해결할 정도로 봉사 정신이 강하다.

여운상 회장은 "협회 임원진과 클럽 관계자들 모두 자원봉사로 협회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라며 "이분들의 헌신이 지금의 협회를 만든 원동력이지요"라고 말했다.

회원 수가 꾸준히 늘면서 협회가 고민해야 할 과제도 생겨나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이용객들이 잠시 더위를 식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추가 쉼터 조성 및 휴게 공간 확충, 구장 환경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 확충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최근 파크골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대전 지역의 기반 시설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이러한 이유로 협회는 장기적으로 전국 규모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필요하지만 대전에는 아직 이를 충족하는 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여 회장은 "전국대회가 열리면 선수와 동호인들이 지역을 찾아 연습하고 숙박과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덕구 와동 일원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돼 대전에서도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대덕구파크골프협회가 그리는 미래도 결국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다. 시설 확충과 전국대회 유치 역시 더 많은 사람들이 파크골프를 즐기고, 운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여운상 회장은 "난초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라는 말처럼 파크골프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연을 만들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 숟가락 두 개로 만든 특별한 무대 손옥희 손쌈 숟가락 난타 대표

손옥희  
손쌈 숟가락 난타 대표



피아노·드럼 거쳐 숟가락 난타 개척... 공연과 교육·봉사 이어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악의 문턱 낮춰... "봉사하러 가지만 더 큰 행복 얻어"  
대한민국 신지식인상 수상자 선정도... "더 많은 사람과 음악의 즐거움 나누고 싶어"



공연이 시작되기 전, 어르신들의 손에 작은 꽃반지가 하나씩 건네진다. 숟가락에 꽃반지를 끼운 어르신들은 어느새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익숙한 트로트 선율이 흐르면 손에 쥐 숟가락으로 리듬을 맞추기 시작한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도 사라진다. 공연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사람이 되는 순간이다.

이 특별한 공연을 이끄는 사람은 손옥희 손쌈숟가락난타 대표다. 오정동에서 별빛음악학원을 운영하는 그는 숟가락 두 개로 음악을 만들고, 그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

지금은 전국 각지에서 숟가락 난타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알려졌지만, 지금의 손쌈숟가락난타가 있기까지는 오랜 음악 인생이 있었다. 피아노를 전공한 손 대표는 이후 드럼을 배우며 타악기의 매력에 빠졌고, 20년 넘게 학교 방과 후 강사로 활동하며 학생들을 가르쳤다.

누구나 쉽게 음악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그는 2018년경 대화중학교에서 난타 수업을 맡으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기존 교육 방식이 학생들에게는 어렵다는 점을 느낀 그는 숫자 체계를 활용한 자신만의 교육 방식을 만들었고, 누구나 쉽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찾던 끝에 숟가락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손 대표는 "숟가락은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악기를 옮길 필요도 없고 어디서든 연주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의 고민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냈다. 숟가락 난타는 어린 학생부터 어르신, 장애인까지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이 됐다.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2021년 공연단도 창단했다. 현재 9명의 단원이 활동 중인 공연단은 지역 축제는 물론 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시설 등을 찾아다니며 공연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공연마다 꽃반지를 선물하고 관객과 함께 숟가락을 두드리는 참여형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연을 통해 만난 인연은 장애인 대상 활동으로도 이어졌다.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과 만나 수업을 진행했고, 지난해에는 수강생들이 후원의 밤 행사 무대에 직접 올라 공연하는 성과도 거뒀다.

손 대표는 그날 무대를 회상하며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도 공연할 수 있구나'

하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는 데 정말 뿌듯했습니다"라며 소회를 전했다. 그는 봉사를 통해 오히려 자신이 더 큰 행복을 얻는다고 말한다.

"봉사하러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와요. 어르신들의 환호와 박수는 큰 힘이 됩니다."

최근에는 평균 연령 70세의 시니어 공연단 '빅토리맘'도 운영하고 있다. 79세에 자격증을 취득한 수강생이 있을 만큼 숟가락 난타는 세대와 나이를 넘어 새로운 활력을 전하고 있다.

그동안의 노력은 값진 결실로 이어졌다. 손 대표는 최근 숟가락 난타 분야 최초로 대한민국 신지식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그의 목표는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과 음악의 즐거움을 나누는 데 있다.

인터뷰 말미 손옥희 대표는 "숟가락을 단순한 생활도구가 아닌 하나의 악기로 인정받게 하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숟가락 난타를 통해 음악을 즐기고 함께 웃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꽃반지를 쉽게 빼지 않는 어르신들이 있다고 한다. 손 대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이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닿았다는 것을 느낀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식사 도구인 숟가락이지만, 손 대표에게는 사람과 사람을 잇고 세대를 연결하는 특별한 악기다. 오늘도 그의 경쾌한 리듬은 대덕구 곳곳에서 또 하나의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 가고 있다.



##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대상** 관내 도심지에 있는 단독주택  
**내용** 대문, 담장 철거하여 주차공간 확보  
**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기준** 유형별 지원한도액(설치비용 90% 범위 내 지원)

구분	담장철거(개조)		대문철거(개조)		이웃간경계 담장 철거(개조)	
	직각형 (2.5m × 5.0m)	평행형 (2.0m × 6.0m)	직각형 (2.5m × 5.0m)	평행형 (2.0m × 6.0m)	직각형 (3.0m × 11.0m)	평행형 (3.0m × 11.0m)
최대지원 금액	110만원	150만원	170만원		200만원	

※ 추가 주차면수 마다 최대 60만원 추가 지원(최대 추가 2면까지)  
 ※ 주차장용도 외 사용금지(보조금사업 설치 후 5년간 용도변경 및 폐쇄 불가능)

문의 대덕구 교통과 주차시설팀(☎042-608-5295)

## 대덕로컬푸드직매장 개장 2주년 기념행사 안내



**기간** 2026. 7. 6.(월)~7. 10.(금) [5일간]  
**장소** 석봉복합문화센터 1층(대덕구 대덕대로 1579)  
**내용** 대덕 제철농산물 입고(복숭아, 블루베리, 포도 등)  
 대전농산물 1만원 이상 구매 시 보냉백 증정(소진 시까지)  
**운영시간** 09:00~20:00 / 연중무휴  
**취급품목**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및 화훼 등  
**안내사항** 무료 주차 가능(※ 차량 5부제 적용)

문의 (주)계룡급식센터(☎042-933-3881)

##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한** 2026. 7. 16.~7. 31.까지  
**납세자**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납부방법**

금융기관 방문 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및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부과내역 조회 및 납부 가능
계좌 이체 납부	· 가상계좌 번호로 이체(고지서 앞면 하단에 기재) · 지방세입계좌 이체(입금은행:지방세입, 계좌번호:전자납부번호)
ARS 납부	ARS(☎ 142-211) 통화, 신용카드 납부 및 가상계좌번호 안내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 사이트 접속 납부
자동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 신청한 자동이체 계좌에서 납기내 자동이체 (관할 자치단체, 은행, 위택스 등에서 신청 가능)

※ 납세의무자 외 타인이 재산세 납부하려는 경우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납부 가능  
 ※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가능하나 사용가능 카드 및 포인트, 차감액 및 차감시점 등에 대하여 해당 카드로 별도 문의

문의 대덕구 세정과(☎042-608-6243)

## 2026년 여름방학특강 대덕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접수기간** 2026. 7. 1.(수) 10:00 ~ 7. 6.(월) 17:00  
**모집인원** 158명 / 온라인 접수(대덕구 평생학습-평생학습관-프로그램신청)  
**모집분야** 어린이, 문화예술, 인문교양 등 총12개 강좌  
**대상** 대덕구민 우선 접수  
**선정방법** 전산 추첨 / 신규신청자 우선 선정  
 (인기추첨강좌는 1인당 2개로 수강 제한)  
**납부기간** 선정자 발표(7.10.)  
 수강료 납부및증빙서류 제출(7.10.~7.14.)



문의 대덕구 평생학습관(☎042-608-6494)

##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함께 예방해요!



###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이란?

세균, 바이러스 등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여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주로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장관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

1.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생활화
2.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3. 물은 끓여 마시기
4.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충분히 씻어 먹기
5.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하지 않기
6. 위생적으로 조리하기(칼·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고기·채소 등 도마 분리 사용)

###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시 행동 요령

2명 이상이 동일한 음식물(음용수 포함)을 섭취하여 장관감염 증상(구토, 설사, 복통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신고

문의 대덕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042-608-4452)

## 폭염주의! 온열질환은 예방이 최고의 안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잠깐의 방심이 열사병·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물은 자주 마시기
- ▶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오후 5시) 야외활동 자제
- ▶ 시원한 곳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 ▶ 통풍이 잘 되는 가벼운 옷 착용
- ▶ 주변 가족과 이웃 건강상태 살피기



1.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
2. 옷을 느슨하게 하고 몸을 식히기
3. 의식이 있으면 물 마시기
4.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119 신고

대전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소방홍보팀